<남자의 종말>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세계 전역의 대학과 전문대에서 여성 우위. 미국에서 성장 예쌍되는 15개 업종 중 12개 업종을 주로 여성이 차지. 사회 지능, 열린 의사소통, 침착히 앉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최소한 남자의 주된 능력은 아니다. (14)

젊은 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성적 운명을 제어하는데 유능하다. .여성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와도 잠자리를 갖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여성이 획득. 요즘 10대는 부모 세대보다 성경험 혹은 임ㅁ신 확률이 훨씬 적다.. 성폭행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여자가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할 때는, 학대적인 관계나 상황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33-34)

훅업 문화. 지위 향상을 꾀하는 야심적 젊은 여자에게, 단발적 성관계란 자기계발이나 학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연애 관계에 발을 담그는 방법. ..여학생들은 연애 관계가 “시간을 너무 빼앗고”, “너무 몰두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38)

대학에서는 섹스어필이 경력 관리를 위해 억제해야 할 그 무엇이었다면, 졸업 후에는 사실상 경력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최근 영국의 경제학자 캐서린 하킴은 ‘에로틱 자본’ 연구. 미모나 섹시함보다는 매력과 카리스마를 일컫는다. 에로틱 자본을 가진 사람들(미셸 오바마나 세골렌 루아얄)은 재정적 이익을 얻는데, 이는 그들이 남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신을 힘 있는 지도자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7)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 필립 잠바르도는 ‘사회적 강도 증후군(social intensity syndrome)’이란 병명을 만들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비디오게임과 포르노에 취한 나머지 일대일 접촉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뇌는 ‘디지털적으로 재구성되어’ 더 이상 안정적 연애 관계에, 특히 ‘위상이 대등한 여성 친구’와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61)

지난 30여년 여자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 일하게 되었지만 육아의 부담은 덜지 못했다. 아니, 실은 그 반대다. 1965년 여자들은 매주 유급 노동을 평균 6.3시간, 육아를 10.2시간 한다고 답했다. 지금 여자들은 매주 평균 23.2시간 유급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육아도 13.9시간 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요즘 여자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유 시간을 적게 누리고 있다. (82)

남자들은 가정적 역할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야만 사회가 자신들을 가두어 놓은 답답한 갑옷을벗어던질 수 있다. 베스트셀러 ‘남성 권력의 신화(The Myth of Male Power)’ 저자 워렌 패럴, 청소년 및 성인 남성 담당 백악관 자문위원회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 협의단을 이끄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마초가 되어 버린 남자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함. 남자다움이라는 제약에서 남자들이 해바오디어야 한다고.. 실제 젊은 청년 세대는 직업 만족감과 생활과의 적절한 균형 추구. (100-101)

대개 사회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를테면 전통적 중산층이 몰락하고, 안정적이던 백인 노동 계층이 종말을 고했으며, 미국의 중추가 부러졌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그 변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필경 미국식 가모장제의 출현일 것이다. 젊은 남자들이 정처가 없어지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적어도 사회적 효용성이라는 굉장히 전통적 잣대에 비추어볼 때 쓸모없어진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아 그 잔해를 줍게 된다. (118).. 뉴욕타임스 칼럼니스 데이비드 브룩스는 ‘잃어버린 5분의 1’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일자리가 없는 남자들의 비율이다. (그들 대부분은 대학 졸업장이 없다) 1950년대에는, 한창 일할 나이대 남자들 중 20분의 1이 일을 하지 않았다. 요즘 그 비율으ㅜㄴ 대략 5대 1로, 역대 최대치다. (124).

1970년대 여성은 이혼시 수입이 최소 4분의 1 정도 감소 예상한 반면 이혼 남성은 수입 감소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ㅣ. 요즘에는 이혼할 때 수입의 4분의 1 정도 감소 예상하는 남녀 비율이 엇비슷. 반면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리라고 보는 이혼 여성의 수는 거의 두 배. 누가 누구의 족쇄인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수치.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인 앨라배마주, 기혼 부부 가정 비율은 1990년 57%에ㅔ서 현재 48%로 떨어졌다. (131)

20세기 산업 경제가 분해되고 있으며, 결혼 자연주의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서사 전체, 즉 직업을 가질 것이다, 애인과 결혼을 할 것이다, 집을 살 것이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것이다, 교회에 갈 것이다와 같은 것들이 조각조각 뜯겨 나가고 있다. 이 각본은 경제적 토대 없이는 지탱외지 않는다. (137)

동부 앨라배마 주를 통틀어, 오번은 다른 지역이 빠진 함정을 피해 현대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래를 주의 깊게 설계한 제대로 된 지역. 주변 모든 카운티가 두자리수 실업률 기록하는데, 오번은 6.4% 실업률. 국가 평균을 밑돈다… 정확한 이유는 매우 놀랍다. 오번이 여성이 지배하는 마을로 스스로를 변모시켜서 지역 경제의 맹주가 된 것이다. 여성 소득 평균이 남성의 140%에 달하는 지역. (150-152)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노동력의 추가 여성 쪽으로 기울었다. 25~54세 여성 대략 80%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2011년 여성은 51.4%의 관리직과 전문직을 점유하고 있는데 1980년엔 26.1%였다. 회계사의 61.3%를 여성이 차지했고, 은행 업무와 보험 업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 물리학자 중 3분의 1이 여성이며, 로펌 관계자의 45%도 여성이다. (166)

상류층 여성은 집을 떠나 노동인구에 편입되었고 홍보 대행, 와인 비평, 견과류 과자 개발자, 지속 가능성 컨설턴트, 시나리오 작가 등 줄곧 늘어나는 창조적 계급의 서열을 채워 주고 있다. 이들 여성이 무급으로 했던 일에 기반을 둔 산업이 생겨났다. 육아, 요리, 노인 수발 등이 그것이다. (167)

노동 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중 다수는 “여성이 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것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반드시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직업들이 꾸준히 축적되면 노동계층에게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호의적인 경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175)

기업들은 더 이상 얼굴 없는 중재자나 권위자의 위치를 고수하려 하지 않는다. 민주적이고 다문화하는 시대에 기업들은 접근이 용이하고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한다. .이제 그들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보살펴 주는 속성을 원한다.. 이제 자기 표현과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굳은 얼굴의 가부장제는 단지 죽음의 입맞춤일 뿐이다. (191)

여성이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차별.. 남학생 입학 유치에 훨씬 적극적이라는 사실.. 연구자들은 여러 사립대학교에서 남학생을 특별 대우한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입학 결정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주립대학교들은 여학생 비율이 60%에 근접..불구, 남녀 성비를 절반으로 유지하는 사립대학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203)

남학생들은 C만 받아도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여학생들은 B마이너스 이상을 받고도 자책한다는 것. 남학생들은 기숙사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여학생들은 도서관에 몰리다고.. (215)
남학생들은 드물어서 가치가 높다..고. 입학사정관들은 무시무시한 60% 문턱을 넘기지 않으려고 남학생들의 부족한 면을 눈감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들을 만들어 냈다. “아직 뇌가 발동이 덜 걸렸어”, 대기만성형이야, “큰 그림을 봐”.. “과잉 교육을 받은 여성들:과 :과소 교육을 받은 남성들”이 걱정되는… (217~218)

더 많은 힘을 갖게 된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손에 넣기 위해서 폭력과 함께 새로이 얻은 전문화된 역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 사건들이 특이하고 희귀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남성들에게 흔히 볼 수 있었던 경생심에서 공격성으로, 공격성에서 폭력성으로 변화하는 심리적 단계가 성 역할이 뒤집히고 있는 현재 여성에게도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광범위하면서도 불편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236)

더 진철하다거나 부드럽다거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반드시 여성의 가장 큰 특성은 아니다. 여성은 사회적 신호에 반응하여 시대의 허용치에 맞추기 위해서 인성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 오늘날 여성이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성공할 만큼 경쟁적이고, 지배적이고, 절실하지 않다는 무언의 추측들이다. 하지만 레이디 가가, 캣니스 에버딘, 징이 박힌 운동화와 멍자국으로 무장한 여학생들의 위력 덕분에, 여자들은 이 최후의 장애물마저도 뚫고 나아가고 있다. (258-259)

페이스북의 임원 에밀리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란 없죠. 이건 일과 가정의 통합이라니까요” 일과 놀이와 가정과 아이들과 수면이 24시간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뜻이다. (265)

거의 모든 영역의 리더 자리에서는 진보를 전혀 이루어 내지 못했다. 여성은 포춘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 3~6%, 국회 의석의 17%, 국가 원수 180명 중 20명 뿐.

캘리포니아대 연구자 두 명이 6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주식 거래 방식을 비교. 남성, 특히 독신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자주 거래를 했으며, 잦은 거래는 자신과 본인의 판단에 대한 그릇된 자신감에서 비롯. (거래 빈도가 67%나 많았다) 이 과잉 자신감의 결과로 나쁜 의사결정을 더욱 많이 하게 되고 낮은 순수익이 훨씬 낮아진다고. 경제 붕괴 떄, 명확한 지침을 제공. 주변에 여자가 많으면, 무의미한 위험이 적어진다는 것. 신속한 행동력과 과잉 자신감 등 한때 리더십의 표상으로 여겨졌떤 거들이 이제는 단점으로 바뀌었다. (273)

남자들은 약 4만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고, 여자들은 약 40년 전부터 남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을 뿐. (277)

최근 카네기멜론대 석사 졸업자..남성의 57%가 초봉 협상을 한 반면. 대학 취업지원과의 강력한 협상 권고에도 여성은 단 7%만 초봉 협상. 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7.6% 높은 초봉을 받았다..여성은 자신을 위한 협상은 꺼린다-(282)

공격적으로 말하는 여성은 머뭇거리며 말하는 여성보다 낮은 점수. 스스로를 내세우는 여성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 어떤 식으로든 직장에서 분노 표출하는 여성도 마찬가지..남성에겐 친절하고 집단지향적 행동이 선택이지만 여성에겐 의무- 284

셰릴 샌드버그는 여성들에게 강연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적 결정은 배우자 선택"이라 말하고 청중에 따라 간혹 이렇게 덧붙였단다. "레즈비언이 될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자신의 직업 만큼 여성의 직업도 중요하단걸 이해하는 남자 택하란 296

집에서 ㅋ엄마가 키운 어린이, 집에서 보모가 키운 어린이, 유아원에서 자란 어린이 사이에 인지 발달이나 행동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국립아동보건연구소 종합연구에서 드러났다. (299)

한국이 몇 세기에 걸쳐 건설한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가부장제. 연이어 집권한 독재자들은 개별 가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측면에 유교적 권력 구조를 주입했다..한국 대입제도는 극단적인 학업경쟁을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316… 현재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위기. 한국 정부가 구축한 지극히 현대적이고 시험에 기초한 능력주의가 케케묵은 가부장제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지만, 이 두 체계가 드디어 교전에 들어갔다. 전쟁의 중심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하지만 여전히 얌전한 여자이자 전통적 아내로 남아야 한다는 사회의 얀면적 메시지 사이에 낀 한국 여성이 있다. (318)

2010년 한국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2세. 미국에 비해 여섯 살 더 높다. 이혼은 1990년대 이후 세 배 증가. 한국과 대만의 30대 여성은 다섯 명 중에 한 명 꼴로 독신. 일본의 경우에는 세 명 중에서 한 명 꼴인데, 인구 통계학자들은 그중에서 절반이 독신 상태를 유지할 거승로 전망한다. 아시아 언론 매체는 새로운 유형의 아시아 파워 우먼에 대해 약간은 오만하고 떄로는 적대적 기사로 가득하다. 한국에서 이런 여성은 알파걸, 킹콩걸(프랑스 페미니스트 비르지니 데스팡테가 창안한 용어), 말라비틀어지고 외롭다는 의미의 ‘건어물녀’로 불린다.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골드미스. (321)워킹맘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다 불만이 있겠지만, 한국 워킹맘들이 겪는 부담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근무 시간은 일본 다음으로 길다..한국에서 술자리는 유대감 형성과 인맥 관리를 위한 극한의 스포츠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아내에게 지워진 가사 부담은 20세기 초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325)

요즘 고추장남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는 것은 된장녀가 아니라 된장녀와 상반되는 여성. 본인이 공부하느라고 워낙 바빠서 시험 공부하는 남자를 꾀어 내지 않는 여자, 몇 년 후에는 스ㅡㅅ로 점심이나 멋진 고급 핸드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는 데 남자의 돈이 필요 없는 여자다. 지금 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문제는 유혹의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성적 무관심의 위협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변화하는 여성과 변함없는 남성은 서로를 살펴보고는 상대가 인생의 동반자로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바람에 아시아는 짝 없는 외기러기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 현상이 몇 년간 지속된 일본은 이제 우습기까지 한 단계에 와 있다. 한 정부 조사에서 18세~334세 일본 독신 남성 중 615가 여자 친구가 없다고 했고, 거의 절반이 여자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338~339)

우리는 사회ㅏ적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기민함과 유연성, 즉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굽히고 펴면서 적응하려는 적극성을 우선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시점에, 유연한 여자는 뻣뻣한 남자보다 훨씬 나은 자질을 나타낸다.. 미래에는 뻣뻣한 남자도 어쩌면 장기간 자녀를 주로 돌보는 역할과 약자로 오랫동안 지낸 후 더욱 유연해질 수도 있다. (358)